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북한 핵 관련, 중국을 설득하려면

우수근 (미래연 외교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 상하이 동화대학 교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의 미국 방문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설득 노력도 중요하지만 5개국(북한 제외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북핵 문제는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같은 기간에 인천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미래포럼>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제1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측 해법의 일단이 제시되었다. 동 포럼에 참가한 중국의 유력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간 대화, 남북관계의 개선 및 다자회담에 있어서의 북한의 참가라는 3대 기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해법은 5자회담을 북핵 해결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해법과 그 기저를 달리 한다. 더욱이 중국이 또 다른 원칙으로 제시한 남북관계의 개선 또한 이명박정부 집권 이후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음을 고려할 때, 중국에 우리 정부의 해결 방안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현행 외교정책 역시 대중 설득 노력을 처음부터 무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역설하면서도 “그 기초는 한미동맹과 공고한 한미일 공조”라고 평소의 소신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중국 측의 시각은 과연 어떠한가?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중국 봉쇄구도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은 중국의 관점에 따르면, 한미동맹 강화에 한국이 적극 나서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명은 무관하게, 자신들을 향한 미국의 견제와 대립 구도에 한국이 적극 협조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설득이란 ‘상대편이 이쪽 편을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중국 해법과 상반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 목 조르기 전선”에 가담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형국에서 중국 측을 설득하려 한들 그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중 외교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도 아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힘 보태는 시누이’ 격”이라는 중국의 비아냥거림이나, “설득이란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기대 가능한 법”이라는 어느 중국학자의 한 마디는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와 닿는다.

물론 중국 설득에는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미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한미동맹 강화는 이러한 측면 외에 총체적인 북한 문제에 대한 역지력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에게 미국 못지않은 중요도를 지니게 된 중국을 계속 등돌리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에게서 동맹의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포함한 파트너십의 응용방안과, 나아가 현재의 우리 상황에 보다 적합한 신 패러다임의 개발 등과 같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영빌딩 801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